

입실봉황인재학당 문 활짝

군비 45억 투입 건립
고품격 심화학습 주도
우수인재 양성 요람

입실군 미래인재양성의 중심이 될 봉황인재학당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재)입실군 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는 22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입실봉황인재학당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봉황인재학당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지난 해 군비 45억원을 들여 (구)농업기술센터에 건립됐다. 군은 봉황인재학당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연간 운영비로 8억원을, 으뜸인재 프로그램 비용으로 5800만원을 추가로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봉황인재학당은 입학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174명이며, 중학생 1학년 49명, 2학년 59명, 3학년 66명이다. 연중 주 5일에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목을 중심으로 서울대 등 출신의 강사진들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입실군의 미래를 이끌어



(재)입실군 애향장학회는 22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입실봉황인재학당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갈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서울대와 고려대 등 명문 대학을 나온 우수한 강사진이 방과 후 심화학습을 제공하고, 별도의 식사도 제공한다. 또한 학교 정규수업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고, 학당에서의 심화학습이 끝나면 집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준다. 이를 위해 지난 17일, 입실군 합동택

시와 개인택시단위조합과 함께 업무협약식을 갖기도 했다. 심민 이사장은 "봉황인재학당이 지역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큰 역할을 해 봉황인재학당 출신 인재들이 입실군민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육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 교육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는 입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입실=진홍영 기자

“지방 중심 자치시대 열어야”

지방분권 개헌 서명운동
입실군·군의회 적극 앞장

입실군은 22일 입실군청 건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고 지역사회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촉구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지방분권 개헌 서명식에는 심민 군수와 문영두 입실군의회의장, 진남근 입실군의회 부의장, 이승계 농업협동조합 입실군지부장, 박재만 입실군에향운동본부장 등 지역 사회단체 대표 및 공무원 등 20여명이 함께했다.

심민 군수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으나 여전히 모든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다”며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를 명시하고,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실군은 군청 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 서명부를 비치하고 기관·사회단체 임직원을 비롯한 군민들의 참여를



지방분권 개헌! 입실군민 행복의 시작입니다. 1,000인인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위기를 조성하고 서명 동참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분권 로드맵 발표를 기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방4대협의체(대한민국의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2월말까지 추진한다. /입실=진홍영 기자

입실군의회 임시회 폐회

입실군의회의(의장 문영두)는 22일, 심민 입실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실과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7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8일간의 의정활동과 올 해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입실연안범기공공장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6건의 안건을 의결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올 한해 추진할 주요현안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가 군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함은 물론, 군정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뜻깊은 회기였다.

문영두 의장은 “이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군정요구 및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입실=진홍영 기자



순창군은 2018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순창군 승마산업 활성화 청신호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공모 선정

순창군이 유소년 승마단 창단을 통한 승마산업 활성화에 단초를 마련했다.

군은 최근 2018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하고 한국마사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순창군은 지난해 승마장을 공식 오픈하고 11월에 공모사업에 참여해 지원 대상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로써 군은 군비 4,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 총 8,000만원을 투입해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할 수 있게 됐다.

2월중 참여자들의 신청을 받아 3월 중에는 유소년 승마단을 정식 창단한다는 말 빠른 계획도 세운

상태다. 군 측은 유소년 승마단이 본격 운영에 들어가면 유소년들의 심신 단련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순창군의 승마인구 저변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문을 연 순창군 승마장의 홍보와 운영활성화에도 기여해 지역 승마산업 발전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순창군이 유소년 승마단 창단지원사업에 선정돼 승마장 운영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순창군 승마장이 군민들의 여가활동과 건강지킴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강천산과 고추장민속마을을 잇는 관광 거점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복지사각지대 발굴 총력

순창군은 동절기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회취약계층 및 위기가정 등 복지사각지대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이번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는 오는 26일까지 실시하며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탈락기구와 수급자 선정기준에 미흡해 차상위계층 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 물론, 복지이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단체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발굴된 가구를 대상으로 폭넓은 조사와 상담을 병행 추진한다.

특히, 본인의 법적 보호대상 해당여부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가정을 적극 발굴, 구제하는데 주력하고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 대해 서로 관심을 갖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방문조사를 통해 법적보호의 범주에 속하지 못한 가구는 이웃돕기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지원할 계획이며 맞춤형 복지(기본·권역형)의 지속적인 방문을 통해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발굴하고, 다양한 복지제도 홍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와 소외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입실군 통합마케팅 협의회 열려

입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지난 해 사업결과 보고 및 올해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통합마케팅 협의회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입실군 통합마케팅협의회는 7개의 공선출하(복숭아, 딸기, 토마토, 고추, 양파, 감자, 오이) 농민단체와 4개의 농업관련 조직(입실농협, 오수관촌농협, 입실군조합공동사업법인, 입실고추농산물가공판매(주)) 및 행정기관(입실군청, 품질관리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2017년 출하실적 135억을 달성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 정산 보고를 시작으로 각 사업별, 공선출하 품목별 성과를 분석했다.

이어서 통합마케팅 7년차를 맞이해 입실군이 자체사업으로 행정·농협이 협력하여 추진 중인 원예농산물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인 통합마케팅 공선출하 조직 조직화사업, 농특산물 상품화사업, 농가 생산교육 컨설팅 및 통합마케팅 경영컨설팅사업 등으로 4억원을 올해 사업으로 확정했다.

심민 군수는 “농산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제값받는 농산물 시대를 실현해야 한다”며 “농민이 웃을 지을 수 있도록 농민과 농협, 행정이 상호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입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희망 심어주기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첫발

남원시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희망 심어주기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 지난 19일 합천 첫발을 내딛었다.

이 사업은 군 전역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과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남원시와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35사단 7733부대 3대대가 협력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남원에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후 전역하는 청년 중 성실하고 모범적인 전역자를 부대장으로부터 추천 받아 일자리와 사회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1호 참여자는 남원시 기동대 임경욱 병장으로 2년 동안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군복무를 마치고 지난 1월

18일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배치되었다.

시는 “매월 전역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 할 계획이다”며 “청년에게는 경제활동을 통한 희망과 자기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의 유출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는 올해 14억2,000여만 원을 들여 청년과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에 매진한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지역에 있는 기관과 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취업알당제, 구직자들을 기업에 연결해주는 취업알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로 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여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 셋** 노치와 밤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울영상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